

캐나다 내 여성 비 신분 체류자¹ 현황

사람들이 캐나다에 비 신분 체류자로 있는 이유

-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임시 거주 비자를 받고 온다. 따라서 비자 유효기간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비 신분 체류자가 된다. 어떤 사람들은 비 신분 체류자로서 캐나다에 10년, 20년 혹은 더 오래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캐나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나온 나라가 오히려 생소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추방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.
- 많은 사람들이 난민자격 신청을 하고 기각을 당하지만 그들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와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비 신분 체류자로서 캐나다에 남는다.
- 많은 여성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(고용주, 남편 혹은 친척의 후원 보증으로) 캐나다에 오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자신을 학대하는 후원자로부터 벗어날 경우 비 신분 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.

캐나다의 비 신분 체류자 통계

- 합법적 신분이 없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당국에 발견되어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숨어서 살아야 하고 불법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. 이런 이유로 비 신분 체류자 수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. 대략 20,000에서 200,000 명의 비 신분 체류자가 있다고 추산하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다.

캐나다의 여성폭력에 관한 통계

(** 이 통계는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주지할 것. 아래에 나열된 여러 가지 이유로 비 신분 체류 여성들은 폭력을 당할 위험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음.)

- 캐나다의 여성 중 절반이 16세 이후 육체적 또는 성적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.
- 캐나다 여성 중 거의 절반(45%)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.

¹ “No one is illegal”이라는 개념아래 “불법체류자”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“non-status”를 지칭하는 “비 신분 체류자”라는 단어를 사용한다.

- 캐나다 여성 4명 중 1명이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.
-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/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성의 63%가 한번 이상의 폭행 피해자이다.
- 파트너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 중 1/3 이 학대 받는 관계에 있었던 동안 한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.
-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중인 여성들은 살해당할 위험이 특히 높다.
- 1995 도에 여성쉼터를 찾은 여성들 중 25%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3%는 입원을 해야 했다. (Bunge and Levett 1998, 19)
- 장애여성 중 42%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관계에 처해 있다. (Disabled Women's Network 1989)
- 온타리오주의 원주민 여성들의 경우 10명 중 8명이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보고했다. (Ontario Native Women's Association 1989, 7)

Most statistics taken from the website:

<http://www.cafv.inet2000.com/handouts/vaw/ViolenceAgainstWomeninCnada.htm>

캐나다내의 비 신분 체류 여성 및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혜택의 제한 (예: ESL 과 공교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차별 학대 (육체적, 성적, 정서적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 의료 서비스의 한계/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언어장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의 한계/부적절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/부적절한 취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수혜의 한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주의 착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방에 대한 두려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편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립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종차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11 서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

왜 비 신분 체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할 위험이 더 큰가?

비 신분 체류 여성들은 다른 모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고 이에 더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입장 때문에 폭행을 당할 위험이 더 높다:

- 그들은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거나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.
- 경찰은 이민국을 대신해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추방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.
- 만일 자신의 파트너가 폭행으로 기소를 당할 경우 그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.
-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.

무엇이 필요한가?

- 캐나다내의 모든 비 신분 체류자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.
- 경찰이나 여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민 여부에 대해 묻거나 캐나다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다. ‘묻지도 말고, 말하지도 않기’ 방침을 정하면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 여부의 근거로 차별을 받는 일 없이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- 학대적인 스폰서나 고용주로부터 이민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한다.

비 신분 체류자 지지 캠페인

STATUS (신분)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비 신분 체류자들의 자격을 규칙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개인들과 기관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연합이다. status@ocasi.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16)322-4950 교환 239 로 문의 전화를 하면 된다.

‘묻지도 말고, 말하지도 않기’ 캠페인은 광역 토론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2004 년 3 월에 No One Is Illegal Toronto 에 의해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. info@dadtortoronto.org 로 이 메일을 보내면 된다.

본 현황 정보지는 Rights of Non-Status Women Network 에 의해 제작되었다. The Rights of Non-Status Women Network 는 토론토의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들로 구성되어있는 네트워크다. 우리의 임무는 대중 교육과 전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옹호운동을 해나감으로써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하여 폭행을 당하기 쉬운 비 신분 체류 여성들이 서비스나 도움을 이용할 때 직면하는 장벽들의 문제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.

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락처는: Clara Ho at METRAC (416-392-3134) 또는 the Woman Abuse Council of Toronto (416-944-9242; wact@womanabse.ca)

만약 당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이거나 학대 당하고 있는 여성을 알고 있으면 여성폭행 응급전화 1-866-863-0511 또는 1-866-863-7868 (TTY)로 연락하십시오.